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2040세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는 MB정권의 3년8개월여 동안 더욱 벌어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축소 또는 무산시키려 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제검토하려 했다. 거센 국민의 반발을 못 이겨 없던 일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본원과 시·군·경제

방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아우성을 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민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하다.

지역 격차·갈등 해소 시급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지방 민심에 대한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10·26 재보선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서울시장선거에서는 졌지만 10개 지방 기초단체 단체장 선거에서는 전복을 제외하고 완승했다는 것이다. 지방의 민심은 아직 여당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작각은 자유다. 그렇지만 지방 민심은 2040세대보다 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꿈과 희망을 잃은 것은 2040세대만이 아니다. 지방은 미래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오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세대간 갈등 해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간 격차 해소다. 정부·여당이 젊은 층과의 경쟁 투여에 앞서 지방과의 소통부터 나서야 하는 이유다. 집권세력은 한계점에 다다른 지방 민심을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10·26 재보선보다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2040'보다 더 빨 난 지방민심

겠다고 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당연한 말이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다.

하지만, 이 같은 현 집권세력의 태도는 당장 눈 앞에 벌어진 일만 보고 허둥대는 꼴이다. 표출되지 않은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 한마디로 국정 전반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나 균형잡힌 시각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여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2040세대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민심은 수도권의

손실 등 국력만 허비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인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국토균형발전의 청사진이라며 내용은 '5+2 광역 경제권'은 지역 간 균형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며 아직까지 실제마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J프로젝트, 영남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지방의 대형 현안이나 국책사업은 모른 채 하거나 무산시켰다. J프로젝트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현 집권세력은 지방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다. 영남과 호남, 강원 등 지방에서는 수년 전부터 "살기 힘들다" "지

"MB 정부에 지방은 없다"

2040세대 표심에 대한 분석은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표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의 색깔론이 젊은 세대의 역풍을 불러왔다. 결국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은 돌보지 않고 구태의연한 이념논쟁만 벌이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사뭇귀정인 셈이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돌아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명



이병우

퇴사를 앞두고 진로 고민을 얘기하면 대개 두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하나는 기왕 나올 거면 빨리 나와서 다른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오래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근무를 해도 퇴임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일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녔던 회사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권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임원도 퇴임하게 됐습니

'웃'을 벗은 후 2개월

다. 임원회의가 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모두 수리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박하게 받아들이고 속마음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임원이 물러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직한 임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소주 한잔 하면서 근황을 묻곤 합니다.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 준비가 없이 당한 일에서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2개월이 지나자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야 진정이 왜냐고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그렇듯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회사 출근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없었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아침에 넥타이를 매고 도서관으로 출근한다는 분도 있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 영어 학원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등산이나 낚시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아웃도어 의류가 잘 팔리는 이유도 퇴직자들이 산을 자주 찾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만나더라도 명함만 얹다 보니 영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인사를 하면 으레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명함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관계를 재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줄 명함이 없을 때 참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명함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다고 할까요.

모두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늘 하던 얘기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음부즈맨 칼럼



임선숙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라는 복지논쟁에서 촉발된 서울시장 선거는 범야권 시민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박원순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사람과 복지 중심의 시정이 구현될 것이다. 제일 먼저 서울시의 따뜻한 예산을 행하겠다"며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자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어 갈 화두가 될 것임을 예견한 셈이다.

중앙에서는 복지국가 논쟁이 열띤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 우리 지역은 복지국가 또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담론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복지정책의 수립은 국가의 일로서 중앙정부가 해

광주·전남을 복지공동체로

아 할 뭇이라는 생각으로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대한 담론의 형성은 우리 지역도 시급하다. 청년실업, 빈곤, 노령인구 증가, 주택난 등에 시달리는 서민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돌봐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돌봐 줄 능력이 안 되는 청소년이 거리를 떠돌다가 범죄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40~50대의 나이에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으로 생활의 모든 기반을 잃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사람도 많다. 더더욱 가난과 질병 속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빈곤층, 노년층의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나이 들어 노동력을 잃게 되었을 때, 미래에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복지정책들은 결

국 지방정부를 통하여 개인에게 전달되는 만큼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해주거나 정책을 마련해 주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일도 많다. 비록 지방정부들이 재정자립도는 낮아도, 배분되는 전체 예산 중 자치단체가 재량적 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정자립도는 평균 75% 이상은 된다고 한다. 쓰여지는 돈의 물꼬를 길바닥에 쓰느냐, 사람이 쓰느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철학과 의지, 그 지역 주민의 합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복지정책의 수립, 배분, 실행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행복할 삶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중앙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게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지방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당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병원의 간호사는 100% 여성인데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자 간호사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직업분야는 남자 또는 여자만 해당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여사원' 또는 '남자사원'이라고 특정짓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경리도 남자가 할 수 있고, 상담도 남자가 할 수 있다. 이미 여자 대학생들에게도 군대의 ROTC가 허용되고 영업사원 역시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남녀 차별적 광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윤미·광주시 서구 양3동

생활정보지·인터넷 등 성차별 채용광고 사라져야

어떤 신문이나 지역 광고지에 '주방 아줌마 구함'이라는 채용광고가 나왔다면 이것은 과연 성차별일까, 정답은 "그렇다"라고 한다. 그 대상자에 구체적인 '아줌마'라는 성별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사례일 수 있으나 그동안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를 내는 업체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요즘도 규모가 작은 곳의 채용광고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많다. 주로 생활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 사이

트에 게시된 채용광고를 보면 이런 유형들이 자주 보인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두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분명히 위법적인 사례인데 그 많은 불법 사례를 일일이 체크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단속을 덜할 뿐이지 이젠 명백한 남녀차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몸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들입니다. 그때는 실감을 못했지만 이제는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기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작더라도 자신이 할 일을 찾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

다. 저는 퇴직 후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겸임교수 신분으로 강의를 간혹 했지만 이제는 시간강사가 주업이 됐습니다. 현직에서 쌓은 경험을 후학들에게 들려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영학의 구부로 추앙받고 있는 윤석철 교수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 등은 일시적인 '웃'에 불과하고 '웃'을 벗은 후에도 '남아있는 힘(naked strength)'을 기르는 것이 바로 '삶의 정도(正道)'라고 말했습니다. 퇴임 후 2개월은 웃을 벗은 후 예 비로소 '남아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지 절실히 깨닫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자유기고가)

無等鼓

탐욕(貪)과 분노(嗔), 어리석음(癡).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이 세 가지를 꼽는다. 이른바 삼독(三毒)으로, 그 만큼 인간들이 벗어나기 힘든 치명적인 감정이자 태생적인 단점인 셈이다.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손에는 황금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수도꼭지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솔로몬의 황금궁전'을 재현했던 바그다드의 도살자 사담 후세인 등 오일머니로 벌어들인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쓸어넣었던 중동의 독재자들이 보여준 행태가 바로 탐욕이다.



삼독(三毒)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을 재현했던 바그다드의 도살자 사담 후세인 등 오일머니로 벌어들인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쓸어넣었던 중동의 독재자들이 보여준 행태가 바로 탐욕이다.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을 무참히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점에서 분노요, 손에 들어온 부귀·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우연히 세계 원세강의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삼독에 휩쓸려 헤매다가 문득 땅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운명은 바로 이들의 처지다. 우리 정치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서울 시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배제한 오만한 권력 다툼, 탐욕이었다.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각종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두 정당의 네거티브 선거는 경쟁상대에 대한 불안과 분노의 표현이었고, 그런 자신들의 광망을 들고 다녔던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수도꼭지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솔로몬의 황금궁전'을 재현했던 바그다드의 도살자 사담 후세인 등 오일머니로 벌어들인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쓸어넣었던 중동의 독재자들이 보여준 행태가 바로 탐욕이다.

한 정쟁을 뒤쫓아하며 시민을 무시하는 정치의 운명은 중동 독재자들의 처참한 말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물고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 끝에 박원순 시민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진흙 속에 피어난 향기로운 꽃이 필지, 악취를 풍기며 세상을 오염시키는 독화(毒花)가 필지는 그가 품은 가치관과 의지에 달린 것일 게다. 투표가 끝난 뒤 밝은 시각까지 개표과정을 지켜보며 품었던 초심(初心)을 항상 되새겨보아야 한다. /홍행기 정책부차장redplane@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